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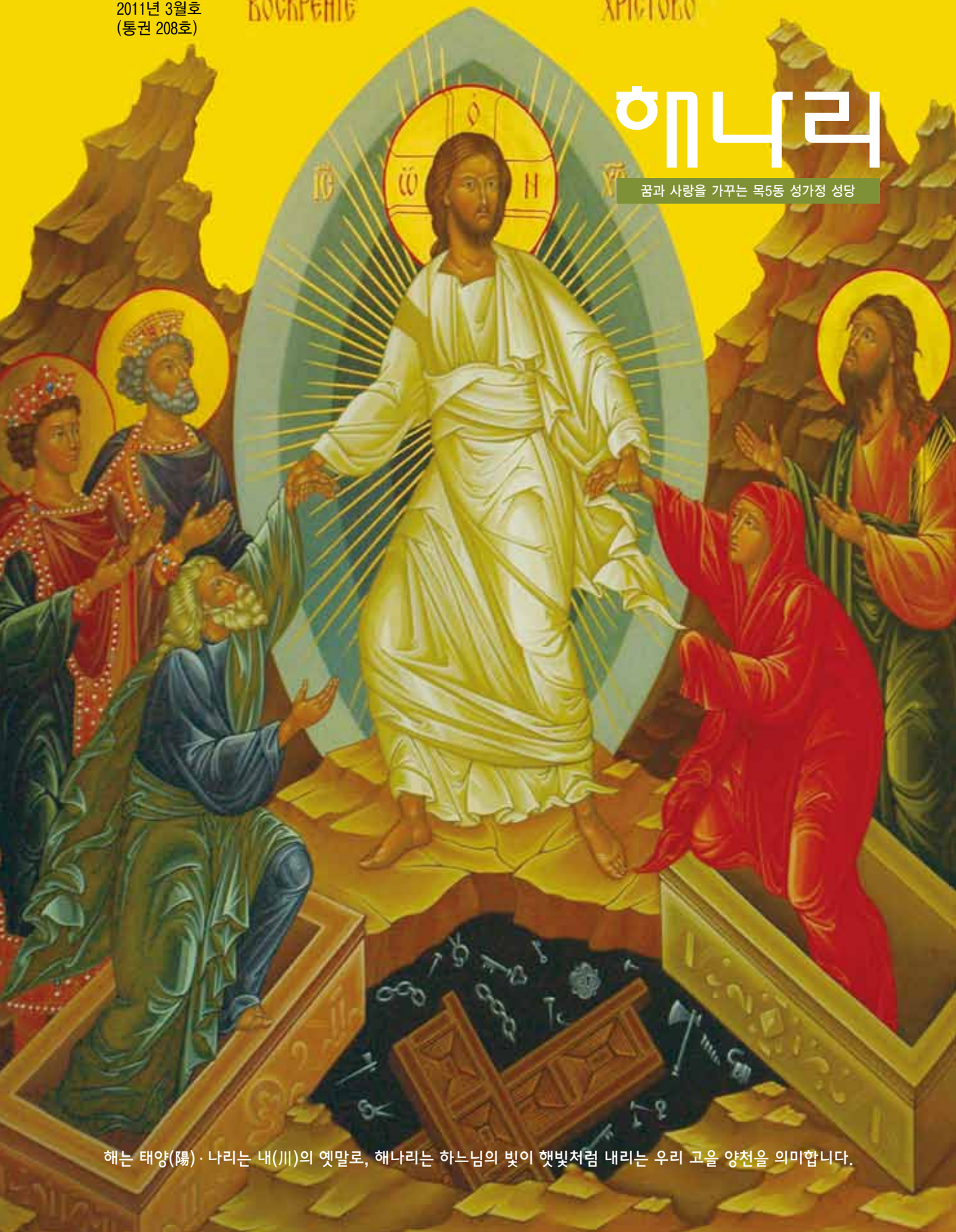
2011년 3월호
(통권 208호)

ВОСКРЕШЕНІЕ

ХРИСТОВО

해나리

꿈과 사랑을 가꾸는 목5동 성가정 성당



해는 태양(陽)· 나리는 내(川)의 옛말로, 해나리는 하느님의 빛이 햇빛처럼 내리는 우리 고을 양천을 의미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아직은 행복하십니다,
아직 두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녁이 되었을 때 온 몸이 뻘근해 힘이 든다면, 아직은 행복하십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니까요,^^

주방에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다고 투덜대신다면 아직은 행복하십니다,
그만큼 풍성히 먹었거나 나누어 먹을 가족이 많다는 증거니까요,^^

빨래거리가 많아 짜증나신다면 아직은 행복하십니다,
그만큼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니까요,^^

집안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울상이시라면 아직은 행복하십니다,
올 겨울 따뜻하게 지냈다는 증거니까요,^^

아파트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아이들의 발소리에
짜증이 나신다면 아직은 행복하십니다,
아직 귀가 먹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직은 행복하십니다,
자녀가 가출은 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집안 청소가 힘이 들어 짜증이 나신다면 아직은 행복하십니다,
노숙자가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서울지역 구·반장 신년미사 때 조규만 주교님께서 읽어주신 글이라며
양천성당 사무실에 프린트를 하여 가지런히 놓아두었기에...

한눈에 보기

여는 페이지	02	
해나리 열어보기	03	내용 한눈에 보기
연재합니다	04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19)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08	봄날을 맞이하며 · 손우성 미카엘 제 2보좌 신부님
수녀님 우리 수녀님	10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 최마리아 니콜라 원장수녀님
축하합니다	11	이호섭 요셉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특집	12	그리스도교 전통 성화 · 장금선 예로니모 신부님
	17	성가정 갤러리 개막전시회를 준비하며 · 큐레이터 장주미 클라라
	18	세례성사를 축하합니다
	20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세례성사 · 김종선 스테파노
글마당	22	사귄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들 · 안경량 마틸다
	27	나의 첫 청년회장 도전기 · 안성철 시릴로
	28	열정 가득할 2011년을 다짐하며 · 류영란 올리아나
	29	하느님께서 너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 김현지 올리아나
	30	초등부 복사단을 마치며
본당소식	32	사진으로 보는 성당소식
소공동체 모임	33	2구역 1지역 9반 소공동체 모임
해나리 문화마당	34	월요 음악회가 있기까지 · 김동규 주세페
문화교실	35	우리들의 기타 이야기 · 정연설 나자로
농산물방	36	농산물방 물품 소개
광고	37	



발행인 이영춘 세례자 요한 주임 신부님
편집 백명애(마르가리타), 이성재(마리아나)
사진 황경희(엘리사벳), 이민정(복자 안드레아)
발행일 2011년 3월 (208호)
전화 2644-1100 FAX 2644-9100
E-mail haenari0330@hanmail.net 홈페이지 www.mok5.com(한글주소/목5동성당.com)
표지사진 주님부활 대축일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 (19)

—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영 —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창세 1,2)



하느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그 시 작부터 장엄합니다. 창세기 작가는 어둠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을 때 하느님의 영이 그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으로 촬영된 태풍의 눈이나, 회오리치는 큰 물결이 상상됩니다. 마치 위대한 작가가 대작을 구상할 때 떠오르는 영감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 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정작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엄마가 유치원생 아이의 손을 잡고 ‘가, 나, 다’를 쓰도록 하는 것과는 뭔가 다릅니다.

여러해 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피정을 위해 오신 청주교구의 연제식 신부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신부님이 ‘신이 내린 그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저녁 해가 지는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먹물로 그리는

동양화로서는 도저히 그 모습을 담을 수가 없어서, 붓대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림’ 같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자신이 그림을 그리지만, 어떤 그림은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가라고 항상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것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여 작품을 그려내면 그 가운데 서너 개 정도 정말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도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이 내린 그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그 신부님이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설가 최인호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소설을 쓸 때, 관련 역사책을 읽고 또 읽고 한 다음, 어느 순간 자기 머리 속에서 그 내용들이 술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것을 부지런히 글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글을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옮겨 적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어떻

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회상하게 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 냈을까?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마태 10, 19-20)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 우리는 작가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때때로 작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으로 작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우주를 알게 되면서 그 위대한 창조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우주의 크기보다 크고, 우주의 신비보다 깊습니다.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태양계는 우주의 한 귀퉁이에 작은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태양까지 가려면 시속 250km로 달리는 KTX로 70년을 가야합니다. 초속 30만Km 속도로 8분 19초를 가야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1억 4,960만Km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의 온도는 1500만 도가 되고 1초에 5억 4,600만 톤의 수소가 연료로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조 배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주에서는 이 태양도 별게 아니랍니다.

큰개자리 별자리로 가면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8.6광년의 거리에 있는 그 별은 태양처럼 불타고 있어서 빛을 내는 항성인데 태양의 20배가 되는 빛을 내고 있습니다. 크기로도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가 109개가 들어갈 만큼 큰데, 지구에서 310광년 떨어진 곳에 오리온 별자리에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그 반지름이 태양의 800배가 된다고 합니다. 베텔기우스가 태양 대신 우리 태양계에 있다면 그 크기가 화성까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독일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발견한 가넷스타라는 별은 베텔기우스 별이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큼니다. 지름이 태양보다 1400배나 된답니다. 태양 대신 태양계에 있다면 목성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것보다 더 크고 뜨거운 별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주의 최고의 낮은 온도는 영하 273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빅뱅 때 있었던 온도는 1조 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별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초신성의 순간 폭발하는 에너지는 태양 100억 개 정도와 맞먹는 열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또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현재로서 137억 광년으로 계산됩니다. 빅뱅으로 생겨난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쯤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137억 광년 거리 밖에는 무엇이 있을지 과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우주가 생겨나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과학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끝에 관

해서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느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달들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산 절로 수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태양도, 달도, 별도 그리고 우주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을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은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달나라를 다녀온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우주의 신비를 알면 우리는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주를 아는 일, 창조된 세상을 알아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최근 우주가 형성되는 데 하느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신문에서 토크으로 다루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그분을 알아보게 합니다. 믿음에는 늘 ‘혹시’라는 의

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인들도 마음 깊은 곳 불신의 어둠을 겪었습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 수녀님도 무신론자의 생각이 자신을 엄습했다는 것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하느님 부재의 어둠을 겪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주 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주 공평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또 어려도 상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순교 선조 103분이 그랬습니다. 소년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대학자도 있었고, 배운 것 없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고관도 있었고 무시당하는 백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하느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눈 위에 찍힌 토끼 발자국을 보면, 토끼를 보지 못했어도 토끼가 지나 간 것을 알 수 있듯이, 집 지은 목수를 보지 못해도 집을 보면 목수가 집을 지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장엄한 우주를 알면 창조주를 보지 못했어도 위대한 창조주가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원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작품보다 그 작품을 만든 분이 더 위대하다는 상식으로 하느님의 크심과 놀라운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증할 수 있는 것들만 현실로 인정하려는 세상입니다. 확인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만으로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

는 도저히 전체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규범이라고 하면 세상과 인간존재는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로 사랑과 미움을 확인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대한 정신, 아름다운 사랑, 놀

라운 조화를 만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조물주의 모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창조된 자연 안에 하느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작가와 함께 하느님 영의 창조적 능력을 노래합니다.

“당신의 숨을 내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30) 

PBC 방송 강연 녹화 방청안내

♥ 녹화 일정

4월 15일	7월 8일 22일
5월 13일 27일	8월 12일 26일
6월 10일 24일	9월 9일

♥ 녹화 시간

14:00~16:30(1일 2회분 녹화, 중간 15분 휴식)

♥ 녹화 장소 양천성당 소성전

♥ 방청 안내

강연 15분전(13:45)까지 입장해 주십시오.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물론 예비자, 비신자도 방청 가능합니다.

조규만 주교의 하느님 이야기



대 상 : 모든신자
장 소 : 양천성당 소성전
일 시 : (금) 오후 2시 ~ 4시 30분

3/11, 3/25, 4/1, 4/15, 5/13, 5/27,
6/10, 6/24, 7/8, 7/22, 8/12, 8/26, 9/9

봄날을 맞이하며

손우성 미카엘 제 2보좌 신부님



† 찬미예수님

저는 지난 2월 22일 목5동 본당으로 발령 받은 손우성 미카엘 새 사제입니다. ‘해나리’를 통해 신자 분들과 인사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문득 성당에 왔던 날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있던 성당에서 첫 부임지로 향하는 트럭에 짐을 싣고 출발 시간을 기다리며, 지난 날 그 어떤 순간보다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성당을 향하는 차 안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일까? 무슨 일을 하며 지내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저의 마음은 마치 신병교육대를 끝내고 자대 배치를 받은 것처럼 그저 긴장되기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도착한 본당에는 주교님과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많은 신자 분들께서 나와 계셨고,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환한 웃음과 환영 속에 어느새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고, 계단을 올라 성당에 들어가며 ‘나의 사제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첫 본당에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봄날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3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 때 ‘아! 인생의 봄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즈음 목5동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따뜻한 햇볕이 하루 종일 내리쬐면 땅이며 풀과 나무들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듯합니다. 몇몇 분들이 안양천과 아파트 단지 내의 봄날 풍경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치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대자연이 봄을 준비하며 생명력을 뿜어낼 준비를 하듯,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꿈꾸어야 하겠습니다.

전역하고 난 후, 인생의 봄날이 찾아왔구나 하고 느낀 것은 아마도 군대라는 다소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의욕이 넘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봄날의 설렘 역시 그러합니다. 겨우내 본색을 숨겨왔던 꽃이며 나무들이 올해는 어떤 색과 빛깔로, 또 얼마만큼의 푸르름과 생명력으로 다가올지 기대하게 합니다. 마치 경주하듯 색을 채워가는 봄의 활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겨울의 앙상했던 가지들을 숨겨놓습니다.

우리들 삶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상처와 실망



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던 날들, 분노와 미움으로 삶을 파고드는 찬바람을 일으켰던 시간, 실패와 좌절로 다시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없을 것만 같던 때 그리고 죄와 잘못이 쌓여 녹지 않을 것 같은 지난 날.

하지만 이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봄의 기운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닫아두었던 문을 열고 땅을 녹이며 나뭇가지를 간질여 새싹을 돋게 합니다. 이런 봄의 기운을 우리들 안에도 한껏 들여놓아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굳어버린 마음에 햇볕 한 자락, 바람 한줄 들여 봄날, 언제 그랬냐는 듯 겨울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편 우리는 사순시기를 맞이하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 일어난 큰 지진과 해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원전의 파괴로 공포와 불안함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또 욕심이나 게으름 등을 참고 절제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머리에 재를 얹으며 ‘사람아,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느님의 손에서 와서 다시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감을, 하느님의 구원 계획안에 우리의 삶이 펼쳐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대지진과 해일이 일본을 뒤덮은 광경을 보며 인간의 힘과 기술이 자연 앞에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손으로 이룩한 도시며 기술이 어찌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지는지, 자연의 힘은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제아무리 최고라 해도, 세상의 온갖 칭송을 다 받는다 해도 결국 우리는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가는,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계획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불완전하고 나약함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힘들고 귀찮은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순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못자리, 곧 신학원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한 곳이 바로 여기 목5동 성당입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배우려는 자세로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본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최마리아 니콜라 원장 수녀님

“목5동 성당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목5동 식구가 되었습니다.

‘늘 새롭게~! 주님 앞에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수도자! 노틀담 수녀회인 저희 수도회에서는 해마다 2월이 되면 소임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새 소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기를 마친 저에게는 2011년의 새로운 소임을 기다리며 9일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오로지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에 맡기는 순명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일 많다고 소문난 목5동의 소임을 받고서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동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언(無言)의 힘으로 예수님과 힘겨루기 한판하고... “내가 항상 함께 한다!” 라고 귀에 속삭이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 짐을 꾸렸습니다.

목5동에 식구가 되어 많은 신자 분들께 인사드리던 날! 아~! 그 때 깨달았습니다. 매 미사 때마다 성당 안을 가득 메운 신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일이 많은 곳이라기보다는 이 많은 신자 분들의 삶과 기도가 담겨있는 곳! 하느님의 거룩한 기운이 이분들과 함께 하는 거룩한 성당이라는 것을요.

주일에는 2시간 간격으로 기도와 미사가 끊이지 않는 곳,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유아세례부터 특히 임종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온 정성을 다하시는 신부님과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

다. 새벽이면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새벽미사를 나오신 신복사어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깊은 신앙을 보게 해 주셨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단체가 많아 만나고 뒤돌아서면 기다리고 계시고, 인사하고 뒤돌아서면 수녀원입구에서 기다리시고, 끝났다 싶어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는 순간 제방에서 인터폰이 울리고 ㅎㅎㅎ 정말 현장을 실감케 했지요. 저도 모르게 혼자 한동안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말로만 듣던 목5동 성당 현장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깐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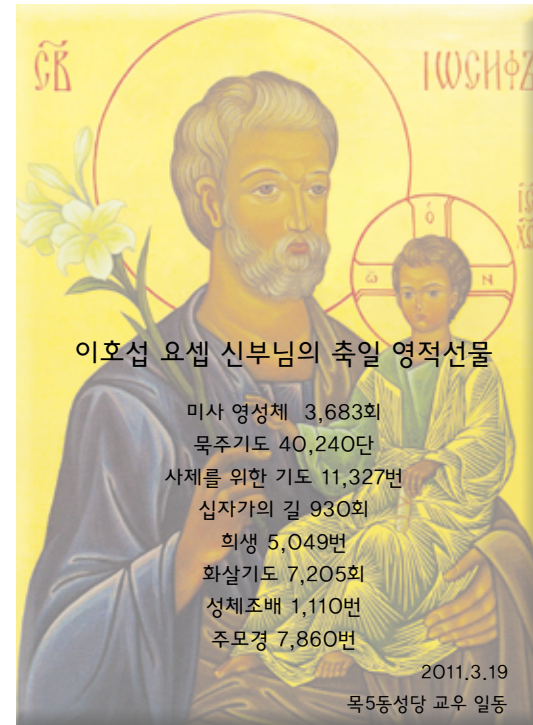
이곳에 저를 보내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무슨 일이든지 ‘허허 웃으시며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신 주임신부님의 소탈한 웃음’과 ‘까칠한 듯 보이지만 따뜻함과 자상함으로 모두를 대해주시는 요셉신부님!’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 금방 세상에 나오신 듯 순수함과 수줍은 미소의 미카엘 새 신부님’과 함께 목5동의 신자들과 한 식구가 되어 성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4)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5동 성당 신자여러분 사랑합니다.

이호섭 요셉 신부님 영명 축일 축하식



그리스도교 전통 성화 - '이콘'

장궁선 예로니모 신부 (서울대교구 이콘 연구소장)



이콘이란 그리스어 'εικόν' 즉 형상 또는 모상이라는 단 어에서 유래한 말로 성서나 교리의 내용 또는 신앙의 대 상인 예수 그리스도, 성모님 을 위시한 성인 성녀들의 형 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적 형태로 그린 것을 말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현재 우리 가톨릭의 성화들도 '이콘'이라 할 수 있으나, 보통으로는 그리스,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의 성화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유대교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신앙의 내용을 형상화 한다는 것을 크게 꺼렸으나 점차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십자가나 물고 기 등의 형상에서 시작하여 착한 목자 등 인물 묘사 로까지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단들의 출 현과 성·화상 파괴 논쟁들을 거치며 세속 그림과는 구분이 되는 기준들이 생겨나 이 기준에 맞추어 그려 야만 이콘, 즉 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속화 로 분류되었다. 즉 형태, 구도, 색, 표정까지 일일이 규정이 세워졌고, 개인의 창작 의지는 접고 오로지 이 규정에 따라 그대로 묘사하여야만 했고, 이는 오 늘에 이르기까지도 변함이 없다. 다만 각 개인의 신 심과 지역적 차이에서 오는 다소의 변형은 허용되지 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가톨릭교회는 르네상스 초기까지 만해도 동방교회 와 같은 전통이 보존되어 왔다. 조토(Giotto di Bondone), 치마부예(Giovanni Cimabue), 두치오(Duccio di Buoninsegna) 등의 작품을 보면 동방교회의 이콘들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르네 상스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로움이 구가되면서 우 리 가톨릭의 성화들은 등장인물과 배경, 주제 등만이 성화일 뿐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세속화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로 가톨릭에서도 '이 콘'을 많이 찾게 되었고 또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서방의 분열 이후 시성된 가톨릭의 성인들도 이콘 기법과 원칙에 의거해 제작하기도 한 다. 이는 인간의 육감에 호소하던 성화들이 한계를



주님세례축일

드러낸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가톨릭의 성화들은 우리와 친밀하고 보는 순간 직접적인 느낌을 주는 반 면, 동방교회의 이콘들은 처음에는 다소 딱딱하고 때 로는 거부감마저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각각의 상 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조용히 침묵 속에 관조한다면 그 무한한 깊이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이콘을 보 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방교회의 영성과 신 학을 알아야 한다.

동방교회의 신학에는 신화(神化) 신학이 있다. 즉 천지창조 때 하느님과 비슷한 모양으로 창조되었던 그 본연의 모습,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전의 그 모습 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신학인 부정신학(negative theology)을 이해해 야 한다.

즉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은 '이러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하느님은 '이러 이 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함으로써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 알고자 연구하며 끊임없이 덧칠해 왔던 것들을 하나씩 벗겨 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이콘도 세속적 견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모님은 이렇게 등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지워나간다.

이렇게 인간의 사고와 의지를 접고 그 본연의 모습 을 추구해 나가다보면 온갖 세속의 복잡한 번뇌에서 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여기서 마음의 내적 침묵 과 평온, 즉 동방교회의 중요 영성인 정적주의(hesychasm)가 나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방교회의 이콘들은 바라보고 즉시 감동 을 주는 성화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관조해야 할 대상 들이고, 처음에는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그 내 면에 발을 들이게 되면 그 깊이에 맞닿아 있게 되며 일 반 성화들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느끼게 된다.

또 중요한 것은 비록 한 점의 작은 이콘일지라도



주님 예루살렘 입성

그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길의 인도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그러 기에 '이콘'은 하느님께 인도하는 길잡이요 하늘에 '이 르는 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신비의 미'인 것이다.

이콘은 그 제작 기법에 있어 작은 돌이나 유리조각 으로 제작되는 모자이크나 벽에 회반죽을 입히며 그 리는 프레스코 그리고 잘 다듬은 나무판에 아교와 흰 가루를 입히고 그리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성서 등에 그려지는 작은 세밀화 기법도 있다. 그러나 그 모두 일정한 원칙하에 제작된다. 첫째 앞서 말한 그 들만의 영성과 신앙 속에 기도하며 그려야 하고, 둘 째 서두름 없이 정성을 다해 제작해야 한다.

안료는 천연 돌과 흙을 갈아 사용하며 계란 노른자 에 백포도주 혹은 천연 식초를 섞어 함께 개어가면서 그린다. 이콘 화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를 눈 에 보이는 형식으로 변형시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 으며, 공간의 깊이 없이 정면에 묘사되는 내용을



주님부활대축일

중심으로 강조하고 배경은 금색 등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콘에서는 사용되는 색들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었다. 먼저 흰색은 고대 이교도 세계에서 신을 나타내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비잔틴 교회에는 神의 영광과 열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하느님과 연관된 이들에게도 흰색을 사용했다. 즉 천사들이나 천상 영광 중의 성모님께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상생활 중의 성모님께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을 사용하였는데, 붉은색은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어머니를 상징하는 색으로서 '모성'을 나타내며, 푸른색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연결됨을 나타내준다.

이 같은 전통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가톨릭에도 보존되어 왔고 라파엘로(Sanzio Raffaello)나 엘 그레코(El Greco) 그리고 현대의 작가들도 표현 기법은 달라도 이러한 원칙과 전통을 지켜왔다.

따라서 지상에서 생활하시던 때의 성모님의 묘사에는 동방과 서방 모두 붉은색과 푸른색을 사용했고 하늘에 불러 올림 받으신 후의 천상영광 중의 성모님께서는 흰색 또는 흰색과 푸른색을 사용했다. 그리고 실제로 성모님의 발현 때에도 '과달루페' 등의 예외는 있지만 언제나 푸른 띠에 흰 옷 또는 푸른 겉옷에 흰 옷을 걸치신 모습이었다. 그리고 녹색은 생명과 희망을 나타내는 색으로서 성령과 관련되는 부문에 사용하였다. 즉 안드레이 루블레프가 그린 삼위일체 중 성령을 나타내는 천사의 옷이 녹색이다.

따라서 동방교회에서는 성령강림 축일이라도 이런 붉은색 제의를 입는 것과 달리 녹색 제의를 입고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성당 구석구석을 장식한다. 갈색은 수도자들의 고행, 세속과 모든 것을 끊은 無의 상태를 나타냈고, 이 외에도 여러 색들은 각각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마치 불교에서 불화(佛畵)의 오채(五彩)가 음양오행사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색으로 그 인물의 성격과 위치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이콘에서는 배경 후광 그리고 옷 위의 금선 등에 금박을 입히는데 이는 하느님의 영광, 고귀함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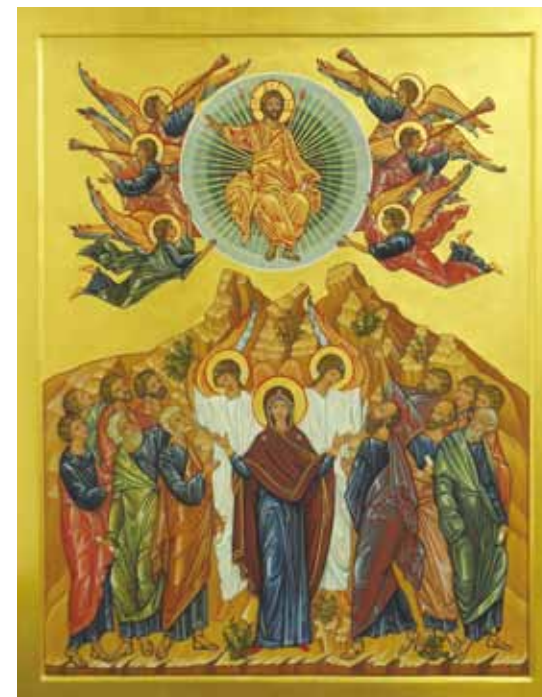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콘은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육화(肉化)하셨기에 표현이 가능하다. 그 첫 출발점이 된 이콘은 몸이 전혀 그려지지 않고 얼굴만 그려져 있는 '만달리온'이라는 이콘이다. 이것은 가톨릭의 '베로니카의 수건'에 찍혀진 주님의 얼굴과 견줄만한 것으로 에우세비오의 교회사 1권 13장 1에 근거를 둔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터키 남부 에데사의 왕 아브가르가 중병을 앓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며 그분의 기적에 한 걸 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을 듣고는 시종을 보내 겸손히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훗날 내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내 너

와 네 가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며 답장과 함께 당신 얼굴을 무명천에 찍어 보내주셨다고 한다. 여기에서 기인하여 그 후로 주님의 이콘을 그릴 때는 이 무명 천 위에 기적적으로 새겨진 모습을 기초로 해서 제작하였다.

예수님의 이콘에는 언제나 그 후광 안에 십자가의 형상이 함께 그려지며 또한 그 속에는 '존재자'(ὁ ὢν=ho on)라는 글귀가 새겨진다. 이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뵈고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즉 '존재자'라고 하셨던 것을 나타내며 예수님 곧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후광 밖에는 'IC XC'라는 글귀가 새겨지는 데 이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 약자이며 주님께서 강복을 주시는 손 모양에서도 그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동방교회에서는 주교와 사제들이 이 글자를 형상화한 손 모양을 하고 강복을 주고 있다.

성모님의 이콘은 복음사가 루카에게서 시작된다.



주님승천대축일

우리에게는 의사로만 알려졌던 루카를 동방교회에서는 최초의 성화 작가로 공경한다. 따라서 루카를 그린 이콘을 보면 복음서를 기술하는 모습이나 '이젤' 앞에서 성화를 그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전승에 의하면 루카가 자신이 정리한 복음서와 함께 첫 성모님 성화를 성모님께 봉헌하자 성모님께서 흡족해 하셨다고 전한다. 성모님의 성화는 이 루카가 그랬다고 하는 '길의 인도자 성모'를 시원으로 다양한 형태가 생겨난다. 그 모두에는 성모님의 머리 좌·우에 그리스어로 '하느님의 어머니' (ΜΡΘΥ)라는 그분의 호칭이 새겨지며 그분의 양 어깨와 이마에는 평생 동정녀이심을 나타내는 별 모양이 그려진다.

성모님은 항상 어떠한 표정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모습인데, 아기 예수님 없이 독자적으로 그려지는 경우에도 항상 그 근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성모님의 머리와 손은 주님을 향해 있도록 그린다. 성모님의 이콘은 몇 가지 기본형에 다양한 변형들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각 지역에서의 기적과 연관되어 생겨났다.

현재 한국에 널리 소개되어 있는 성모 이콘 세 가지를 보면, 첫째 앞서 말한 ‘길의 인도자 성모’는 예수님과 성모님 모두 정면을 응시하며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블라지미르의 성모’는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품에 깊이 안겨 힘차게 어머니 목에 뺨을 맞대는 형상으로 묘사되어 어머니와 아들의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다.

‘수난의 성모’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의 성모’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성모님 좌·우로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각기 수난의 형구인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던 창과 예수님의 입에 대었던 해면을 꽂은 막대기와 십자가를 들고 있으며 아기 예수님은 이와 같은 형상을 보며 어머니 품에 화급하게 달려드는 형상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예수님의 한쪽 신발이 벗겨져 매달려 있다.


그리고 하느님에 관한 이콘은 17, 18C 이후 극히 일부 지방에서 서방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늘어뜨린 할아버지의 형상이 생겨났으나, 하느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며 하느님께서도 당신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신 적이 없으므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세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 전부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르레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셨던 세 천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었으나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레프가 그린 것이 교회의 표준 모델이 된 후로 모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콘은 그와 같이 그리도록 규정되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성화는 왼쪽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그려져 있고, 삼위는 모두 공통적으로 푸른색 옷을 걸치고 있으며, 각기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이는 삼위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며 같은 신성과 권한을 가지심을 나타낸다.

성부와 성자는 고대의 왕권을 상징하는 붉은 옷으로, 성령은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옷으로 나타내고 있다. 성부의 무릎 선과 반대편 성령의 무릎 선을 연결하면 커다란 잔의 형상이 되며 잔속에 성자가 위치하게 된다.

동방교회의 이콘 중에는 커다란 성작 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강복을 주시는 형상이 많은데 이는 구원의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나타낸 것이다. 성자 앞에는 접시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도 또한 희생제사 제물인 황소의 머리가 그려진다. 성부 뒤에는 아브라함의 집이 그려지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나타내며, 성자 뒤 상수리나무는 훗날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성령 뒤에는 바위가 그려지며 이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의 토대인 성령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이콘에는 다양한 상징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으며, 그를 통해 신자들을 하느님과의 일치로 인도하고 있다. 



〈성가정 갤러리 평면도〉



성가정 갤러리 축복식 및 개막전시회를 준비하며

큐레이터 장주미 클라라



이번 4월5일에는 성가정 갤러리가 3개월여의 준비 끝에 개관식을 갖게 됩니다. 이영춘 세례자 요한 주임신부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문화사목사업의 한 축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성가정 갤러리는 그동안 복도로만 사용되었던 지하 소성당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유리문을 갖춘 24미터 길이의 전시 쇼 케이스와 14미터 길이의 일반 전시 벽면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전시 쇼 케이스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LED조명을 사용했으며 습기와 온도 변화로부터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우수한 전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교리실, 주일학교 사무실 등 성당 시설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만큼 교우들의 회합과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회합실 창문에 부분 가림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갤러리와 함께 오픈하는 북카페에는 2대의 모니터를 설치하여 전시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실 수 있게 했으며 차와 함께 편안하게 전시를 돌아 볼 수 있는 훌륭한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오후 7시에 시작되는 개관행사에서는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의 주재로 축복식이 거행되며 앞으로 본당에서 소장하게 될 “축일 및 대축일 이콘전”이 개막됩니다.

개관전의 이콘들은 본당에서 서울대교구 이콘 연구소에 제작을 의뢰한 작품들 중에서 80cm×180cm 크기의 “성모자”를 포함한 대작 3점과 60cm×75cm 크기의 “주님 승천 대축일”을 포함한 축일 이콘 16점

으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식 후에는 이콘들을 제작해 주신 이콘 연구소 소장 장궁선 예로니모 신부님의 강의 “그리스도교 전통 성화-이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이콘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하느님께 인도하는 길잡이로 불리는 이콘을 통해 특히 사순 시기에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길의 인도자로 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콘전은 4월 26일 화요일까지 계속되며 전시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향후 성가정 갤러리에서는 연중무휴로 다양한 대관전시와 기획전시를 통해 본당 교우 및 가톨릭 미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북돋우고, 본당 교우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대관의 경우 일주일 단위(수요일부터 내주 화요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갤러리 일정에 따라 협의 가능하며, 대관료는 본당교우 및 가톨릭 미술가 협회 회원들을 우대합니다.

대관을 원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최근 포트폴리오, 작가 프로필과 함께 본당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고 이메일(hfgallery@nate.com)이나 우편, 팩스(02-2644-9100)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성가정 갤러리 전화(02-2644-0236)나 이메일(hfgallery@nat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가정 갤러리와 북카페는 문화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소가 되고 열린 사목의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성사를 축하합니다

“ 3월 19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신
111명(첫 영성체 6명 포함)의 형제자매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세례성사

김종선 스테파노



세월이 참으로 빠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목5동 성당에서 매주 수요일 '수요 어르신 반'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6개월을 지내나 했는데, 교육이 끝나 어느새 3월 19일로 세례성사를 맞게 되니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어린 시절 친구 따라 예배당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으나 종교를 가지려 본격적으로 교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구 중에 목회자가 많아 저마다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하나 '내 자신을 믿지'라며 고집을 부리곤 했습니다만, 그 동안 '종교란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해오던 나로서는 종교에 귀의한다면 천주교를 택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소의 신념에 따라 늦게나마 세례를 받으려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혀 백지상태에서 교리교육을 받고, 주일 미사를 드리려니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18종류의 주요 기도문을 특유의 리듬으로 암송해야 했고, 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상하게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미사드릴 때 옆에서 지도해주신 조마리안셈 원장 수녀님의 천사와 같은 보살핌에 불안감은 다소 해소되었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기도와 몇 가지 기도문 외에는 버벅거리고 제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험생의 암기식보다는 믿음이 충만하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신명 6,5)하신 말씀을 따라 삼위 하느님을 향한 믿음(信)과 사랑(愛)을 키워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4대 복음서를 틔나는 대로 필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성들여 창세기부터 계속 필사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비신자 교육기간 중에 명동대성당, 서소문 순교성지, 약천성당, 절두산 순교성지, 새남터 순교성지 등을 순례하면서 선조들의 숭고한 순교정신을 본받아 악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을 증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이 성지들을 무심히 지나쳤던 지난날이 부끄러웠습니다.

영상교육으로 수단의 슈바이처인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영상과 '마더테레사', '사서와 수녀생활' 그리고 '최초 조선인 신부 김대건 안드레아' 등을 경건한 마음으로 감상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과 기준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등 신앙인으로 갖춰야 할 덕목을 배운 것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례명을 '스테파노'라고 정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고 박식하고 연설을 잘했으며, 박해자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해 첫 순교자가 된 그분.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외치며 눈을 감으셨다." (사도7, 55-60)는 훌륭한 내가 평소 존경해 왔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세례명이 '스테파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70여 년간 무리하게 사용한 기계가 노화되니 비록 기도문을 잘 외우지 못할지라도 이제 그동안의 모든 잘못과 지은 죄를 통회하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고

목5동 성가정성당 안에서 여러 교우들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세례성사를 맞이할까 합니다.

예비자 기간 동안 보살펴주신 이영춘(세례자요한) 주임신부님과 조 마리안셈 원장 수녀님, 대부님으로 선뜻 응해주신 한순석 미카엘님, 피정을 안내해주신 도인길 요셉님 그리고 6개월 동안 교리교육에 봉사해주신 유재희 엘리야님 송 바올라님, 조 헬레나님 등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당 설정 25주년을 맞는 목5동 성가정성당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f



★ 본당에서는 매달 요일을 바꾸어 예비자 교리반을 개설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4월 화요일 오전 10시 반, 저녁 8시 반

5월 수요일 오전 10시반, 저녁 8시 반

구·반장 체험수기 서울교구 우수상

‘사킴’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들

2구역 2지역 전 구역장 안경랑 마틸다



구역장직을 그만두게 되자. 총구역장님이 그간의 체험사례를 써 달라고 부탁하셨다. 뭔가 쓸 것이 있을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발로 뛰어다닌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주일미사 때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 보았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되다.”라는 영성체송을 따라 할 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내 앞에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이 보인 것이다. ‘아, 저렇게 상을 잘 차려 주셔서 내가 2년간 행복하게 지냈던 것을 몰랐구나. 극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넉넉하게 차려주신 그릇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여러 체험이 있을 테고 그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가까이 놓여있는 그릇에는 우리 가족이 보였다. 우리 부부가 구역장을 맡았을 때 남편은 두 번째 직장에서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있었다. 남편은 연임이 안 될 거라고 했지만, 나는 내심으로 열심히 성당 일을 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봐 주

실까하는 기대를 조금 했다. 그런데 예정대로 남편이 퇴임했을 무렵 우리 가족은 지난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평온했다.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여럿 받았고, 하느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제대하고 복학한 아들은 지하철 카드 요금이 찍힐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했다. 아들이 실제로 그렇게 절약해 산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아이에게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 된 것 같아 감사했고, 그 말이 나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남편은 그 전에는 구역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는데, 구역장을 맡은 이후 구역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형제님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구역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바람을 비쳤고, 구역모임과 연도 가기를 좋아했다. 성당이 친숙해져서 좋다고 했는데 자연스레 집에서도 성당에 관한 대화가 많아졌다. 남편보다 나이는 적지만 성당생활을 먼저 한 남성 총무님의 성실한 협조도 좋은 윤활유가 되었다.

남편은 동창모임에 가면 구역장을 맡았노라고 자랑스레 알리곤 했는데, 직장이란 산속에만 살던 산골소년이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과 접하면서 신나하는 모습이었으니 나는 속으로 ‘처복도 많아’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우리 본당은 부부구역장 체

제이고 대체로 자매들이 역할을 맡으면 형제님들이 따라서 하신다.)

구역장을 맡고 각오를 다지려고 토요일 새벽미사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딸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꼭 깨워달라고 하였다. 다음날 새벽, 남편도 깨워 셋이 함께 새벽미사를 드리고 있으려니 뭉클한 감동이 일었다. 그래서 “주님 제게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제 노고에 대해 상을 주시려면 이번 몫은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고 성서구절을 흉내 내어 기도를 드렸다.

주위에서 나에게 성당 일을 즐겁게 한다는 말을 가끔 들었는데, 아마 내 마음 바닥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나의 수고가 딸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가족 그릇의 뒤편에는 구역 식구들을 담은 그릇이 보인다. 힘든 일을 겪으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른다. 안면 부위에 아주 미세한 수술을 받아야 했던 형제님이 그 분야의 최고 의사를 만나 치료받은 일, 제대한 아들이 원인모를 배탈이 났을 때 걱정이 태산이던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제발 무사히 지나갔으면 했던 바람,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였던 자매님과 이제 그 고비를 넘겨 환하게 웃으시는 형제님을 보면서 안도했던 마음, 봉성체하고 계신 젊은 자매님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기도를 하곤 했는데 이

제 희망을 되찾아 밝아진 모습을 대하는 기쁨, 어려운 일을 당한 아들을 위해 자신을 던져 기도하고 계시는 자매님이 떠오른다.

교중미사 봉사에서 제병제주를 부탁하면, 영광스런 기회를 늘 자기들에게 줘서 고맙다며, 다른 분께 먼저 권해보시고 없으면 맡겠다면 자매님, 그 밖에 입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소망을 오늘도 내일도 품고 사는 우리 교우들, 이 모두 주님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소중한 식구들이다.

아직도 구역 원들 중에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더 많고, 함께 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은 모두 힘든 일을 이겨내고 잘 지내셨으면 하는 욕심이 나서 주님께 그렇게 해 달라고 떼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연도나 장지에 가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주님께 부탁드렸다. 어릴 때 시골풍습으로 망자에게 산 이들의 병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곤 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저승에 가서 하느님께 청을 드려달라고 부탁드리는 버릇이 생겼다. 미신이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옆에는 옹기종기 앉아 있는 반장님들 그릇도 보인다. 반장은 구역장의 가장 큰 백(배정)이자 자산이다. 하지만 반이 11개로 많아 좀 벅찼고 처음에는 반장님들과 소통이나 단합하기가 쉽지 않았다. 월례회의 후에 점심을 함께 하려해도 약속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단체행동으로 몰고 가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성격이 소심하여 덤벼대며 일 처리하는 모습이 어설피 보일까봐 마음에 걸렸다.

청소와 미사봉사나 성당행사를 치르는데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반장님들께 항상 부탁을 드려야 했고, 그럴 때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참여자가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묘한 것은 하느님께서도 더도 덜도 아니고 무척 적당한 수준으로 일을 마치게 해주시는 것이었다.

처음엔 내 속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서, 내가 노력하여 되는 일보다는 하느님 계획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란 걸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구역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그 만큼 일이 수월해졌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따뜻한 격려의 눈길을 보내주신 반장님들이 고맙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지금은 반장님들께 무엇이든 편안하게 부탁할 수 있고, 구역장 역할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 역할을 계속 맡고 싶지는 않다. 하느님은 내가 무엇을 자신만만하게 하려고 할 때는 멈추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문자 메시지가 소복하게 담긴 그릇도 보인다. 총구역장님의 문자를 받아 전달하고 헤쳐 모이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새 우리 반장과 구역장들은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던 일들이 하나씩 성사되어 가곤 했다.

그 옆에는 구역장들이 모여 있는 그릇이 보인다. 구역장들은 동료이고, 우리는 좋은 친목단체



에 속한 느낌이 든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움직이다 보면 서로 배우고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만나면 늘 반갑다.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으로서 한 형제 되어란 구절의 맨 앞에 있는 ‘사귄다’의 의미를 구역장을 하면서 제대로 깨달았고, 이제는 ‘사귄다’를 ‘섬김’이나 ‘나눔’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 ‘사귄다’는 공동체의 기초요, 하느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구역장들이 부활절, 사제서품일, 성탄 전야 등의 잔치 때 하는 일을 보면 놀랍다. 까칠한 도시의 중년남녀들이 이날은 마당쇠와 무수리로 변신한다. 국수 그릇 1500개를 비롯한 총 3,000~3,500여 개의 그릇을 꺼내, 씻고 차리고 서빙하고 거둬서 설거지를 해서 다시 집어넣고 뒷마무리를 하려면 아침 9시에 출동하여 다음 날 새벽 2시 경에 끝난다. 다들 개미처럼 바쁘게, 기계처럼 실수 없이 요리사, 청소부 등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

그런데 힘든 일을 하고 지쳐 쓰러지거나 불평하는 분들이 없다. 특히 남성구역장님들이 진심으로 즐겁게 국수 삶고, 짐 나르고 하시는 걸 보면 신비롭기까지 하다. 일 끝나고 신부님이 따라주시는 막걸리 한 잔이면 피로가 다 달아난다. 운이 좋아(?) 몇 시간 후에 미사봉사를 하게 되는 구역도 있는데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함께 함’, ‘일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

‘스타탄생’의 경험도 잊지 못한다. ‘일치의 날’ 행사에서 전통적인 ‘구역 장기자랑’ 대신에 남녀 구역장들이 춤을 준비하여 신자들에게 기쁨을 주기로 했다. 2009년에는 성당 자매님의 안무로 ‘장윤희의 트위스트’를 준비했는데 남성구역장님들의 퇴근에 맞추어 밤 8시부터 성당에 모여 연습했다.

행사 날 빨간 미니스커트를 갖춰 입고 관중들 앞에 나섰는데 신자들의 호응이 무척 좋았다. 앵콜을 받으니 스타가 된 것 같았는데, 이후 양천지구 구·반장 송년 행사 때도 나가서 히트를 쳤다.

잘하기보다 신나게 추기로 방향을 잡았던 탓에 장내가 흥겹게 어우러져서 유명가수 콘서트 장을 방불케 했다. 춤이 어렵긴 했지만 함께 모여 웃어가며 연습하니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사귄다’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자신감이 쌓이자 그 다음 해에는 4~50대 아줌마들이 감히 소녀시대의 ‘Oh’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여성구역장들만 참여했는데 만만치 않은 곡이라서 무더운 날씨에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연습하였다.

핑크모드의 유니폼으로 무장하고, 어려운 동작에는 정확성은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 추어 열광적인 반응을 받았다. 무대 뒤에서 앵콜을 기다렸건만 사회자가 야속하게 배반하는 바람에 무척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잠시 아이돌 스타가 된 기분이었는데...

구역장들 간의 사귄다는 구역 일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구역에서 초상이 나면 막상 장지 갈 사람이 귀하다. 반장들은 자녀가 어리고, 초상은 갑자기 나는 것이어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참석할 수 없다.

언젠가 다른 구역에 연도가 났을 때 그 구역장의 청을 받고 간 적이 있다. 얼마 전 우리 구역에 연도가 났을 때는 그 구역장이 장지까지 동행해주어서 참 좋았다. 또 상을 당한 교우는 평소 미사봉사 때 적극 도와주신 분이라 내 임기 내에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럴 때 당신의 방법으로 잘 조절해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낀다. 세상 떠난 분을 배웅하는 일은 의외로 평화롭고 배울 점이 많고 보람이 있다.

구역장의 그릇 옆에 있는 내 영성이 담긴 그릇은 아직도 거의 비어 있다. 마음은 잘 흔들리고,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사귄다는 까다롭고 나눔과 섬김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은 인식하다. 그래도 구역장을 하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다. ‘채워 주실 분은 하느님이시니까 나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느님의 식탁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들이 있다. 부활절이 끝나면 부부구역장 피정을 갔었고, 신부님을 모시고 때로는 여성 구역장들끼리 여행도 여러 번 갔었다. 구·반장의 노고를 인정하시는 주임신부님의 배려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해 11월에 105명의 구·반장 수학여행(성지순례)단이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 행사는 자체로도 좋았지만 10명의 반장이 참가한 우리 구역에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지난 9월로 구역장 임기가 끝났는데, 시작 당시 후임으로 정해두었던 분이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새 구역장을 찾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다. 가능성이 있는 몇 분께 부탁드렸다가 서로 어색해지기도 하고, 남편은 그런 상황에 큰 실망을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이 의외로 쉽게 풀렸다. 나가사키로 가는 배 안에서 반장님들과 대화 중 자연스럽게

후임 구역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후임자가 떠올랐다. 그분은 반쯤 승낙하고 귀국 후에 형제님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리셨다.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반장들 간의 단합은 더 돈독해지고, 차기 구역장은 물론 2년 후의 구역장까지 정해졌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책임감을 느껴, 차례가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남편과 내가 구역장을 넘기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차기 구역장과 다음 순번의 구역장까지 자연스레 정해지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우리 구역, 좋은 구역’이라는 긍지를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사귄’을 통해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구역 식구 모두 힘께 느꼈으리라 믿는다.

지난 2년 4개월은 내 생애에서 가장 뜻 깊은 날들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하느님의 식탁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사귀고, 즐기면서 하느님 가르치심을 실천해보려고 노력했고, 한편으로 내 앞의 부족한 그릇들을 채워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

나의 첫 청년회장 도전기

청년연합회장 안성철 시릴로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청년연합회 회장직을 맡게 된 안성철 시릴로입니다.

날씨는 3월이 다 가고 있는데, 날씨는 아직 쌀쌀하네요. 요즘 날씨는 꽃샘추위가 아니라 그냥 겨울인 것 같이 추운데, 그래도 작년보다 벚꽃은 1주일정도 일찍 개화한다고 하네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지금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청년회장을 하고 있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과연 내가 회장을 할 수 있을 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제 갓 신입사원이 된 제가, 그것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어서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활동을 시작한 2003년부터 친한 누나, 형들이 한 명씩 한 명씩 회장을 하게 되는걸 보면서 어쩌면 언젠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입사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리 잡게 되면 내년쯤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저의 뜻이 아닌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고, 결국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 마음을 먹고 조금 일찍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회장도전기는 시작되었고, 나를 연합회에서 하는 일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벌써부터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게 되네요. 왜 작년에 부회장을 하면서는 잘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막상 회장이 되어서 진행하려고 하니 뜻대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회장이라는 직책이 가져오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일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실수를 해도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 연합회 식구들과 일요일마다 저에게 ‘뭘 회사가 주말에도 사람을 부른다냐’면서 저 대신 성을 내주시는 보좌신부님, 그리고 마주칠 때마다 항상 얼굴 전체에 미소를 지으시며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분과장님 덕분에 지금은 즐겁게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느님께서 열심히 회장일 하라고 일요일엔 쉬고 있어서 다행히 미사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갈 길이 태산인데, 하느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도와준 우리 연합회 너무 고맙고 앞으로 계속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2011년 즐겁게 성공적인 연합회 만들어보자.

화이팅! 🙏



열정 가득할 2011년을 다짐하며

중고등부 교사회 교감 류영란 율리야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 중고등부 교사회 교감 류영란 율리야나 입니다.

2010년 11월, 아직도 꿈만 같던 교감 선거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던 교감이라는 자리가 나에게 돌아오니 처음엔 멍하기도 하고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이끌어 나갈 자신감도 없어 두렵기만 했고 모든 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신부님, 수녀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시고 새로운 신입교사들도 들어오고 교리 개학도 하다 보니 정신없는 2, 3월을 보내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어느새 교감의 자리에 선지도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 교사들만의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너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감사하라”

이 구절이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감이라는 자리가 낯설고 두려웠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

음으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년의 교사생활밖에 안 해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교사를 하며 저의 신앙도 조금 더 성숙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를 “교사”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행복하게 만들어 준 학생들과 교사들 덕분에 계속 교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행복과 사랑을, 1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사들을 배려함으로써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맡겨주시는 부모님들과 언제나 열정 가득히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11년에도 언제나 활기찬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2011년 2월, 신부님, 분과장님, 분과위원님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너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감사하라

초등부 주일학교 교감 김현지 율리야나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2011년도 초등부 주일학교 교감을 맡은 김현지 율리야나 입니다!

벌써 목5동 성당에서 초등부교사를 한지도 2년 9개월째가 되어갑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목5동 초등부를 알았을 때는 캠프준비가 한창이었던 2008년 6월 중순이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캠프 봉사자로 한 번 불러 간 것이었는데 그 캠프를 계기로 교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성당 주일미사에만 겨우 부모님 손에 이끌려나가는 ‘무늬만 신자’였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도 없었고 교리지식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내가 직접 행사를 기획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항상 챙겨주시는 좋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초등부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사생활에 적응해가면서 결국 올해는 교감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고 예전보다 주님께 한걸음 더 다가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제가 교사회에서 봉사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사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께서 너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감사하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신 것은 알지만 그것에 응답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각종 행사준비, 교리준비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사실이고 가끔은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희생보다, 얻을 수 있는 은총과 배울 수 있는 점들이 훨씬 많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만을 크게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부에는 총 23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 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교사가 부족해 고민하는 다른 본당 선생님들을 보면 ‘아 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 모자람 없는 본당에서 저는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어 그 안에서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며 하느님께서 불러 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일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언제나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어린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손우성 미카엘 신부님과 김지혜 마리아에디트 수녀님, 김성우 요셉 분과장님, 한윤호 볼프강 분과위원님, 자모회 어머니들께 감사드리며, 초등부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 🙏

초등부 복사단을 마치며



조성현 베드로

2011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이제 정든 초등학생 생활과 초등부 복사단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어야합니다.

맨 처음 초등부 복사단에 들어갔을 때는 새벽미사도 의욕적으로 서고 불평하는 법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6학년이 되니 최고참이라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사단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친구들과 든든한 동생들까지 있는 매우 신나고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미사전례에 섰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포근히 안아주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복사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을성과 끈기를 길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관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니다. 동생들도 복사생활 동안 복사를 서는 기쁨과 나쁨의 의미를 잘 찾길 바랍니다.

비록 저와 중1들은 중고등부에 가지만 초등부에는 새 식구가 들어옵니다. 복사대장 정훈이와 복사부대장 민지가 어린 신입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복사단을 열심히 이끌어 나가 목5동 어린이 복사단을 더 재미나고 즐거움이 넘치고 오고 싶고 예의바른 모범적인 복사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복사단에서 활동하지만 저에게 사제라는 소중한 꿈을 심어준 초등부 복사단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무능한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준 초등부 복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아, 우리 초등부 복사단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너희의 것이야.

초등부 복사단 잘 부탁한다!!

박세은 노엘라



복사를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새벽미사에서 정신이 혼미해져 두 번이나 미사 중에 내려온 일이 있었고, 신부님 수녀님께 혼나던 일, 또 복사자세에 대해 엄마게 꾸중 듣던 일... 도중에 그만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3년이란 기간을 지내온 지금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뿌듯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

첫 미사, 첫 주복, 고종미사 처음 서던 날, 또 알베르토 신부님 첫 미사에 화동을 했던 일, 이 모든 일들이 복사를 하면서 가장 떨리고 기억에 남는 일이다. 축일파티, 복사단 캠프, 주교님·신부님께 세배 가서 세뱃돈 받은 일, 또 속스럽지만 신부님 축일에 노래 불러드린 일, 모두 모두 다시 생각해 보니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난다.

처음 4학년 때는 새벽미사 복사가 가뭇했는데, 6학년이 되면서

부터 점점 힘들어지더니 복사를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복사가 나를 부지런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성실하게 했던 것이다.

복사를 설 때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편하게 신자 석에 앉아서 미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난 주 후배 복사들이 복사서는 모습이 예쁘고 의젓해보였다. 그리고 부럽기까지 했다.

복사를 하면서 많은 인연 또한 갖게 되었다. 3년 동안 복사단을 맡아주셨던 백성우 신부님, 오대일 신부님, 김재현 신부님 그리고 마지막 졸업파티를 함께해주신 손우성 신부님, 네 분의 신부님과 네 분의 수녀님, 또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

복사단을 떠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그자리가 그리다. 부대장이라는 큰 임무도 맡아본 복사단에서의 추억이 평생 갈 거 같다.

여러 가지로 나를 크게 해준 복사단.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후배들, 특히 장난꾸러기 남자후배들!!! 무섭게 해서 미안해!! 헤헤헤~~~

문재원



3년 동안의 복사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난 지금까지 실수도 많았지만 여러 고난을 넘어 다시금 중등부 복사단에 들어갔다. 나의 필살기인 적극적인 방법으로 충실할 것이다 ^^*

초등부 복사단 시절은 재미있는 학사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계셨었다.

지금은 모두 떠나고 없으시다.ㅠㅠ

그리고 보니 난 참 행운아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 주신 좋은 학사님, 신부님, 수녀님이 계실 때 복사단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 역시초등부 복사단이 더 좋은 것 같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목5동성당을 꼭 찾아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리라고 약속한다.

초등부 복사단 화이팅~!

이한 스테파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신앙생활.

솔직히 그때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단순한 시간낭비라고 두들겨리며 성당에서 아는 친구들을 만나 함께 첫영성체를 받고, 정기적으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론 때 서 있는 게 귀찮아서 강제로 친구 한 명을 끌고 와서 미사를 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서인지 서 있는 게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다.

같은 해, 나는 엄마의 권유로 복사단에 들어갔다. 힘들지만, 매일매일 새벽미사를 나가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쓰면서

1달 동안 더 큰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힘들게 복사단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섰다.

다행히도, 나의 첫 번째 미사는 학사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학사님이 가끔 귀뜸을 해주셔서 큰 실수 없이 지나갔다.

그렇게 1년이 좀 더 지났다. 어엿한 초등부 복사단의 최고 학년으로서,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후배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했으나 항상 모범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복사단을 이끌어갈 후배들은 더 발전하고, 모범적인 복사단이 되어 성당발전에 기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정빈 라파엘라

하느님의 착한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복사를 하게 되었지만 마음과 몸은 그리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에 오르면서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기도와 보살핌 속에 하루하루가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인내와 스스로의 책

임감 등이 커져가는 저를 발견함으로써 하느님의 착한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1년의 복사생활이었지만, 나에게도 보람차고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 은빛대학 개강식



3월 3일 은빛대학 개강식

❖ 가톨릭 성서모임 개강 미사



3월 8일 화요일 가톨릭 성서모임 개강 미사

❖ 아치에스



3월 27일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 재의 수요일



❖ 십자가의 길



❖ 성가정 갤러리



❖ 북카페



지금 성당은 공사 중



2구역 1지역 9반 소공동체 모임

반장 박영은 마리아



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고 묵상하였으며 9월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으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가끔씩 지나는 길에 자매님들과 우연히 마주쳐도, 웃음 지으며 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는 같이 차한 잔 나누기도 쉽지 않은 요즘 저희 반은 반모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며 항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과 체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나눈 복음 말씀은 마태오 복음 17장 1절-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듣기에서 끝나

우리 반의 자매님들은 성서공부나 연례회, 주일 학교 교사 등 신앙생활에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연례회에서 일이 많아도 항상 참여하여 우리의 신앙 궁금증을 풀어주고 계신 세실리아 형님, 여러 가지 상식과 생활의 정보를 함께 나누며 저마다 한 달 동안 겪었던 체험과 나눔으로 항상 다음 달 반모임을 기다리며 아쉬움 속에 마칩니다.

지면을 빌어 여러 가지 사정상 시간이 안 되시는 자매님들께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사랑의 향기가 가정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되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하고 명령하셨다. (마태오 17, 1-9)

월요음악회가 있기까지

주세페 김동규 (예술감독, 팡페라테너)



해나리 문화마당

주임신부님, 문화분과 관계자분들과 해나리 문화마당의 시안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 구상되었고 월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여 **문화교실**, **공연** 그리고 **전시**를 통하여 성당신자들을 위한 문화밥상이 해나리 문화마당에 차려지게 되었습니다.

목5동 성가정성당이 25주년을 준비하는 즈음해서 훗날 한국천주교회사의 문화부문에 의미 있는 문화사목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될 해나리 문화마당의 기획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월요음악회

해나리 문화마당에 펼쳐질 월요음악회는 **부활절부터 대림 전까지 월요일 저녁 8시**에 행해질 상설공연입니다. 이미 지난 송년음악회를 준비공연으로 시도하여 무대, 음향, 조명 등 그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5월 2일부터는 매주, 크고 작은 공연 팀들이 초대될 것이며 공연의 내용은 **‘탈 장르, 탈 종교의 조화와 균형 잡힌 열린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대를 통하여 우리 가톨릭 신자들 중에 예술인 및 단체들이 많이 발굴되고 공연기회를 통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연에 타 종교의 연주자 및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초대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분위기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면, 월요음악회는 각박한 현대사회의 편견과

오해들을 다양한 음악백신으로 녹이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화합의 마당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엇이든 잘 정착되려면 시행착오도 반드시 겪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정해진 예산으로 최상의 공연을 마련하는 것이 기획의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준비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 팀이라도 항상 최상의 공연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예술의 세계이니만큼 관객들은 누가 더 잘하나 우위를 가리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진정한 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예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가치 하나만으로도 뜨거운 박수로 찬사를 보내어 축하해주는 인정 넘치는 훈훈한 문화마당이 정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여봅니다.

마지막으로 본당설정 25주년을 문화를 통하여 거듭나고자 하시는 본당 신부님, 사목회 총회장님, 문화분과장님 그리고 임원님들의 높은 안목에 경의를 표하며 본당직원 여러분들께도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한없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5월 월요음악회 프로그램

2일 : In the Mood (린나이 팝소오케스트라)

16일 : 내사랑 튜유 (홍서범, 조갑경 부부)

23일 : 여보 사랑해요

(주세페김, 김구미 부부 & 아우름 어린이합창단)

아우름 어린이 합창단 (Pueri Cantores)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 화음을 이루는 다성부 합창은 어린이들이 집중하면서 조화와 균형감각을 익히게 해주며, 몰입 속에서도 절제까지 체득하게 하니 합창이란 ‘홀로와 더불어’를 이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오묘하고 성스러운 아날로그적 예술입니다.

2011년 3월 목5동성당의 어린이성가대가 ‘아우름 어린이합창단’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에서는 7번째로 교황청의 국제어린이합창연합(브에리 칸토레스)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성음악 중에 아카펠라(무반주 다성부 합창)곡들을 노래하는 전문합창단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우름(AURUM 또는 AUREUM)은 라틴어로는 ‘금’을 뜻하며, 우리말로로는 ‘함께’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전문적인 어린이합창단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면서 함께할 어린이 신입단원들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노래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입단원 수시모집>

자격 : 초등학생 (본당신자 및 인근 본당신자, 예비신자)

연습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 토요일 오후 5시~7시)

어린이 미사 : 토요일 오후 2시

오디션 : 동요 또는 성가(자유곡 1곡) + 간단한 기초청음 및 발성테스트

문의 및 오디션 신청 : H·P 010. 8287. 0369 (학부모 대표)



우리들의 기타(Guitar) 이야기

해나리 문화교실 기타 강사 정연설 나자로



영화 ‘올지마 톤즈’를 몇 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 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놀랍기만 하던 그 다양하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이태석 신부님!

더구나 독학으로 익히셨던 음악 실력은 어느 전문음악인을 능가하는 음악성이었고 그 음악을 통하여 더 빛나는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는 음악활동으로 대중음악과 생활성가를 연주하고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음악은 하느님이 주신 보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빠르고 정신

없이 지나가버리는 우리의 삶에 음악은 휴식과 자유와 새로운 계획을 만들 기회를 줍니다.

더욱이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음악은 ‘하느님 찬미’에 너무도 중요한 전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맞춰 주임신부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고 보살핌으로 마련하신 ‘문화교실’에서, 기타 반 강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반에서는 가톨릭 성가와 생활성가(외에도 다양한 음악)를 편곡하여 연습과 찬미를 위해 교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에 관심 있는 분, 누구라도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농산물방

목5동성당 농산물방 물품은 200여 가지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김이나 소금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은 미리 예약 주문을 하시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위캔 쿠키”가 입고되었습니다. 소포장에서 선물용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성당 매장을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땅물뱃’ 물품 이용 방법과 봉사회원들의 추천 물품 소개

‘하늘땅물뱃’은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운영됩니다.

회원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인터넷(www.wrn.kr)과 전화(2068-0140~3)로 가입하신 후 가입비 3000원+예치금30000원을 입금합니다. 회원은 매월 소식을 통해 물품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양천구는 주 1회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주문하고 수요일에 물품을 각 가정에서 받게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적립금이 발생하며 물품 구매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예치금은 우리 농촌운동을 위한 기본자금으로 사용되며 탈퇴할 때는 돌려드립니다.

비회원은 ‘하늘땅물뱃’ 직매장이나 성당 매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당의 농산물방 봉사자들 추천하는 물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무말랭이 김치 ; 매장 냉장고 젓갈류 선반에 있는 무말랭이 김치 맛보셨나요? 먹을 때 참기름 한두



넣어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 도라지 ; 기관지와 호흡기에 좋다는 도라지!! 인삼 부럽지 않은 사포닌을 함유하여 예로부터 기관지염과 호흡기질환에 사용 되었어요. 도라지는 귀찮더라도 안 깎 것들 사세요. 하얗게 손질된 것은 중국산도 많고 표백제를 넣기도 한다네요. 우리농산물 매장의 안 깎 도라지 정말 맛있답니다.

♥ 식혜 ; 저는 음료수가 생각나면 전통 식혜를 먹습니다. 옛질금 향이 진한 우리 식혜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들에게도 탄산음료보다 우리 전통 식혜가 몸에 좋을 것 같네요.

♥ 한우 곰탕 ; 구수하고 진한 한우 사골 곰탕 맛이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개봉하여 간편하게 뜬배기에 부어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남편 아침식사 준비로 아이들 영양식으로 그만입니다.

기쁨의 부활, 생명을 나눕시다!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농민들이 무농약 벼짚과 쌀겨 등을 먹여 전통적 방식으로 키운 안전한 소입니다. 4월 30일부터 토, 일요일 양일간 성당 마당에서 판매합니다. 포장단위는 1Kg 씩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농 본부에서 확정 후 목5동성당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 일정은 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울 떨어뜨리면 꼬들 꼬들 씹히는 맛이 그만입니다. (루치아)

♥ 명란젓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덜 짜고 알이 탱글탱글 살아있는 것 같다. 알탕이나 달걀찜 할 때

(모니카)



편집후기



★ 교우 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글이 해나리의 힘입니다. 성당에 다니며, 단체에 참여하며, 미사를 드리며 보고 듣고 느끼신 일들을 원고지에 옮겨주세요.

7매 이상 12매 이하로 써 주시고, A4용지는 1-2매 정도의 분량이면 좋습니다.

원고의 상단에 전화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해나리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중하게 써 주신 글 해나리에 예쁘게 실겠습니다. 보내주실 해나리 메일 주소는 haenari0330@hanmail.net입니다.

★ 해나리에서 교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나리를 함께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십시오.

많은 것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냥 들어오시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크를 기다립니다!!

해나리 편집실

- 해나리 광고안내 -

- ① 신청 방법 : 백명에 마르가리타 011-9899-3866
- ② 광고료 : 1회 1호 3만원씩 3회 9만원입니다.
- ③ 계좌 번호 : 외환은행 327-22-01559-1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④ 광고 문안 : Haenari0330@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도움을 주신 분들

유럽 학생들과 함께하는 3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 2011년 7월 24일 - 8월 14일(3주)
대·일반 : 2011년 6월 26일 - 8월 7일(6주.장기)
주관 : 마 브랜단 신부
문의 : 그린피스 E&T 02-3446-4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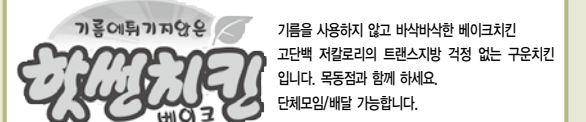
상담센터 행복한 아이들

소장 정미나(헬미나) TEL 02-2653-4306~7
현대드림타워 209호
(방송회관 옆 스포츠조선 건물 2층)

아동상담 - 학습치료 · 놀이치료 · 언어치료
발달장애 - 통합치료 및 교육 미취학 또는 취학 아동의 예비학교
집단상담 - 학습능력향상 / 주의집중력강화 / 사회성 향상
성인상담 -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역할훈련
심리검사 - 자녀의 지적수준과 성격특성을 진단하여 정서 및 학습 등에서
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도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초·중등 수학과외

- ▶ 전 학년 선행 및 내신 준비와 심화과정까지 (경시, 올림피아드)
- ▶ 대상 : 초등~고1 · 경력 16년
- ▶ 장소 : 월촌중 옆 (하이베라스) 최지현(로사리아)
- ▶ Tel : 010-3996-8031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 드립니다.)



김군자(마리아)

목동점: 02-2653-9282

- 309동 뒤 강서고등학교 입구 -

자동차의 모든 것

- 중고차 매매 · 신차(국내 전 차종)
- 수입차 수출 및 폐차



(주)서안모터스 이현인(바오로)

H.P. 011-241-1212

영어, 자유롭게 표현해야 진짜 실력!

영어, **토스 잉글리시**에서 제대로 완성하십시오.

토스목동캠퍼스
☎ 2653-1588

굿모닝 공인중개사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전문
매매 · 전세 · 월세 구함

2649-9200

목동APT 6단지 611동 앞 관리동 상가
김정숙(효주 아네스) H.P 011-9498-9433

청기와 부동산

친절 · 성실 · 신뢰

☎ 2647-1223

목동아파트, 한신 청구, 주상복합 전문
목동 APT 5단지 C상가 104호에 있습니다.

김경화(로사) HP 010-2997-2987

타임부동산

목동아파트 전문
안인근(안젤로) 조정례(안젤라)
(代)2654-1055

— 목동5단지 A상가 105호 —

이화 공인중개사

김은숙(비아) 김현숙(아네스)
Tel : (02)2644-0043
H.P : 010-7272-7318

목동 2단지 일반상가 118호
등록번호 : 82413342

나눔 공인중개사

2643-5050 (주, 야간 가능)

박정림(엘리사벳) 김민숙(요셉피나)
목동3단지 일반상가 328동 앞 하나은행 옆

온누리 공인중개사

신공웅(도미니코) 010-3253-2263
하영숙(바올라) 010-9671-2369
TEL. 02-2649-5580

수수료는 0.2% 염가로 봉사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APT 3단지 일반상가 301동 앞 하나은행 옆

행운 공인중개사

기쁨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2646-8844

목동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전문
남기복(마지아) H.P 011-249-4774
5단지 A상가 101호(515동 앞)

다원재가복지센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요양기관

대표/사회복지사 권오철(가롤로)
전화 2662-7733 HP 011-748-1234

외부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5호선 방화역 3번 출구 방향 5분 거리

원어민 영어 레슨

- 저학년 : 연령별 언어 발달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자연스러운 영어습득
- 중, 고등학생 : 내신 및 입시 고득점 보장
- 대학생 및 성인 : 각종시험, TOEFL, TOEIC, 대비 및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생한 영어회화

☎ 이혜원(레지나) 010-9020-2177

항외과

대장항문전문
(대장내시경 · 치질수술)

원장 : 임석원(토마스 아퀴나스)
전 송도병원 진료 부원장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①번출구 앞
TEL : 855-7175 www.hangpro.co.kr

강서 성모내과

- ◆ 내시경 (위 · 대장 · 수면 내시경)
- ◆ 조음파 (심장 · 갑상선 · 복부)
- ◆ 혈액 종합검사

염창동 국민은행 앞, 전화 : 3662-7585
원장 : 김영준(펠릭스)

꿈나무 소아과

소아 아토피 피부염 정연정(안나)
소아 중이염 원장/소아과 전문의
알레르기 클리닉
영유아 발달검사

158-055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7 광장빌딩 3층
TEL : 02)2643-8155 FAX : 02)2643-8154

HERBALIFE.

함께해요, 허브다이어트 안옥희(데레사)
☎ 2648-7942(친구사이)

현대월드타워 B1 H.P. 010-7299-8433

유기농건강기능식품, 자연화장품 Nutrition club

공인 결혼정보사 - 초 · 재혼 · 만혼

m · 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전문 커플매니저 시스템

Tel. 1566-6205 / 02-3141-3888
H.P 010-9236-2700

대표 김 마리아

김지영 에스테틱

원장 김지영(예비자)
피부 · 비만 · 경락(고주파 관리)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01 신사가지 1단지B상가 외환은행 2층
TEL: (02) 2062-0848 / H-P: 010-5767-1350
영업시간 오전10:00 - 오후 9:00

세레니고 피부관리실

코리안 화장품이 운영하는 고품격 관리적 가격의 신개념 에스테틱 샵 세레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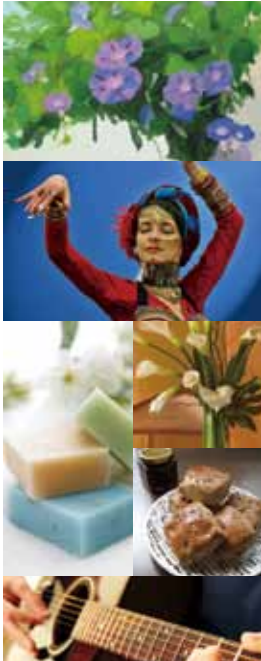
평 일 11:00~21:00 김광식(아오스딩)
토요일 10:00~19:00 이은경(이레네)
개인룸, VIP 룸, 커플룸 완비

목동 부영그린 2차 2층 ☎ 2645-0580

목동 스카이 노래연습장

품격과 전망 있는 당신만의 휴식공간

정진영(바오로) · 한선희(마리아)
예약문의 : (02)2654-0377
목동 청소년회관앞(목동하나 프라자 13층)



오전 강좌 및 강의실

문화교실

강좌명	강사	강의 시간	강의실
이론만들기	장궁선 신부 김혜성	10~12시 30분	
서양화 유화	남희자	10~12시	
서예	선화자	10~12시	
꽃꽂이	차애리	10~12시	
웃음치료	안소영	10~12시	
발마사지	이혜순	10~12시	
연극놀이	김명원	10~12시	
밸리댄스	김임영	10~12시	

공예교실

강좌명	강사	강의 시간	강의실
퀼트	김정란	10~12시	
리본과 비누공예	이은주	11~12시 30분	
한지 그림 공예	이정옥	10~12시	
제과 제빵	임숙연	10~12시 30분	

음악교실

강좌명	강사	강의 시간	강의실
클래식 기타	정연설	10~12시	



오후 강좌 및 강의실

문화교실

강좌명	강사	강의 시간	강의실
디지털사진 100%활용하기	김형석	4~5시 20분	
교려 수지침 및 건강요법	김영현	6~7시	
요가 실버생활체조	이영선	3~4시 3~4시 (수)	

공예교실

강좌명	강사	강의 시간	강의실
생활 도자기	정재진	12~2시 30분	
퀼트	김정란	1~3시	
비즈공예와 스티치 공예	이성희	2~3시 30분	
POP 예쁜글씨쓰기	임정희	2~4시	
제과 제빵	임숙연	2~4시 30분	

음악교실

강좌명	강사	강의 시간	강의실
재즈피아노	윤순	2~6시	
장구 및 난타	전삼근	3~5시	
차임벨	전옥찬	8~10시 8~10시 (수)	
클래식 기타	정연설	2~4시	